

# 오늘의 게시판

**행사** (22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이동희 선비문화연구원장이 '기업경영자와 선비정신'에 관해 강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오전 7시30분 여수시 흥국체육관 앞 사거리 및 서교동 교차로. 240여명이 참여 홍보 전단 배포.  
▲여수 시티-파크 개발사업 시민 찬·반 토론회=오전 10시 여수시청 회의실. 여수시와 ㈜여수관광레저가 900여원을 들여 여수시 봉계동 산 187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퍼블릭 골프장(18홀)·관광호텔(52실) 건설에 대한 찬·반 토론회.  
▲임방울 국악재단 정기 이사회=오전 11시 센트럴 호텔.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 캠페인=오전 11시 화순군청 및 화순전남대병원 일대. 장애인먼저실

## 의재 창작스튜디오 오픈전 27일까지 의재미술관 일대

전 전남운동본부 소속 자원봉사자와 후원인 등 120여명 참석해 '장애인 먼저'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 및 홍보 전단지 배포.  
▲광주시립교향악단 제 231회 정기연주회 'A Merry Christmas'=22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의재 창작스튜디오 오픈전=27일까지 의재미술관 일대. 김지섭·천대광·안향희·진시영·이정록 등 국내 작가 5명과 사리타 동골(Sarita Dongol·네팔)·하지메 미주타니(Hajime Mizutani·일본)·시아페이 창(Hsia Fei Chang·대만)씨 등 해외 작가 6명 참여. 21일 성안경 2004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박만우 2006 부산비엔날레 현대미술전 감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작가와 대화 시간.  
▲송파 이규형 개인전=27일까지 대동갤러리.

삼락서예원 이규형 원장의 서예 40년 결산전.  
▲빛고을 사진회 발표전=3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기차와 기차길을 담은 사진 작품 전시.  
▲자유시간=23일까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전시관. 전시회 기획동아리 '자유시간'의 창립 기념전.  
▲환경과 자연 미술제=27일까지 갤러리 자리아트. 광주시 환경미술협회회원들의 정기전  
▲박일정전=12월31일까지 고흥도화현미술관. 도판화(陶板畵)·도자기로 만든 판에 그린 그림) 작품 전시.

**역사속의 오늘**  
▲'삼국사기' 간행(1145)

##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12월 넷째주 인기 검색어 1위는 13개월만에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공식 개막된 5차 2단계 북핵 6X회담이 차지했다.  
네터즌들은 대다수 언론과 방송에서 지난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회담과 병행해 북·미간 '방코델타아시아(BDA) 실무회의'도 열리면서 6자 회담과 BDA 문제가 사실상 연계,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과 당초 21일 폐막할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 일정이 하루 정도 연장돼 22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회담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그맨이자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SBS '웃찾사'의 '미녀 삼총사'팀의 교통 사고 소식도 인터넷을 달궜다. 김형은·장경희·심진화 등 미녀삼총사 일행 등은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께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속사나들목 부근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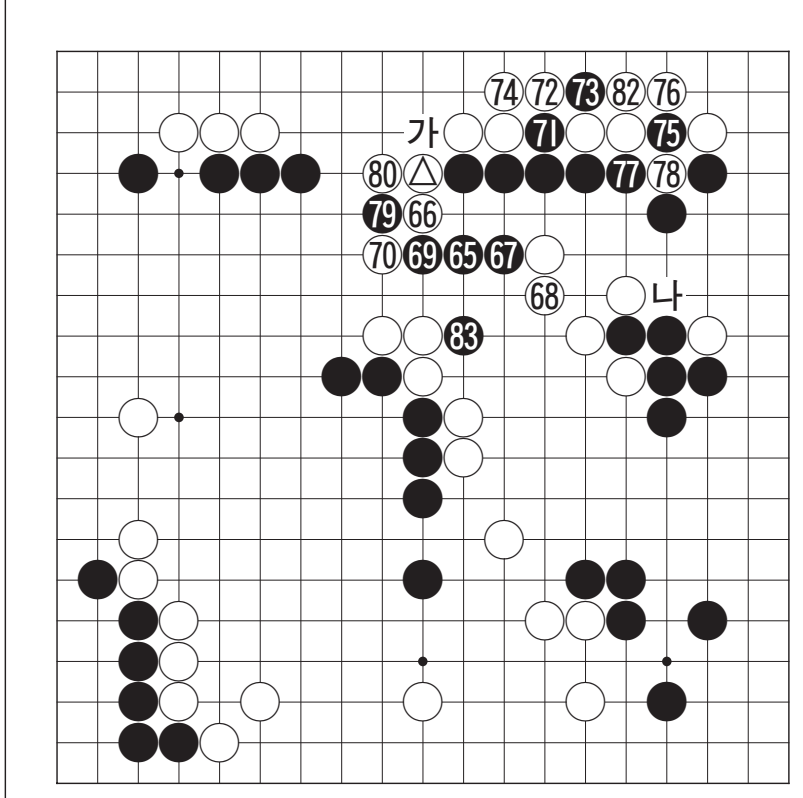
던 김형은은 목뼈와 신경을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00년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1급)판정을 받은 뒤 재기한 가수 김원래(37)씨도 지난 17일 폭설이 내린 고속도로 운전 중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차량은 장애인용으로 감씨가 혼자 타고 운전 중이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한 뒤 지난 19일 귀국한 김연아(16)도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았다. 네터즌들은 귀국 이후부터 한국 피겨사를 새로 쓰고 있는 당찬 소녀의 인터뷰 내용과 사진, 동영상 등을 보며 "기본 좋은 소식을 전해준 국민 여동생"이라며 격려했다.  
오락 프로그램에는 잘 출연하지 않던 김태희가 MBC 연예오락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하면서 네티즌의 반응도 뜨거웠다. 무한도전은 지난 16일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김태희를 초대해 유재석, 박

명수 등 MC들과 함께 개릴을 부르고 첫 키스에 대해 고백하는 등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빅 보이' 최희섭(27·탐과배이 데블레이스)의 약혼 소식도 화제를 모았다. 최희섭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일본 후요그룹 회장의 딸 야스다 아야(29) 씨와 약혼식을 올렸다. 후요그룹은 후지은행, 쇼와해운 등을 중심회사로 두고 있는 일본 6대 기업 집단 중 하나다.  
이외 제 27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및 여배우들의 파격적 드레스, 2007년 대선 전망, 본격 유동에 들어간 크기와 무게가 대폭 줄어든 새 10원짜리 주화 등도 검색어에 올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주간 금상성 검색어 <네이트닷컴 제공>			
1위	6자 회담	6위	김원래 교통사고
2위	김형은	7위	최희섭 약혼
3위	김연아 우승	8위	청룡영화제
4위	무한도전 김태희	9위	2007년 대선
5위	2007 대선	10위	새 10원



최근 잘 출연하지 않는 오락 프로그램에 나서 솔직한 대화로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김태희.



제8회 이상호배 전국 아마 바둑 선수권 대회

빛나간 행마 5보(65~83)

白 조민수 7단 <전 남>    黑 김호진 5단 <서 울>

조민수 7단이 힘차게 백을린 장면

<참고도> 이다.이곳은 흑이 '가'로 짚는 것과 는 천지차이로 백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장면이다. 이곳을 얻어맞고 김호진 5단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흑 65가 빛나간 행마로 대실착이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붙이는 것이 행마의 요령이며 상식이다. 백 2로 늘면 그대 3

으로 짚히고 4로 끊어오면 13까지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었다. 이것이면 등이 엄청나게 두터워져 흑 우세. 실전은 66으로 올라선 수가 선수가 되어 거꾸로 백이 두터워지고 있다. 뒤늦게 69로 밀어보았으나 70으로 막는 자세가 좋아 별무신통이다. 백이 두터워지자 중앙의 흑이 상대적으로 얇아졌다. 우변도 '나'로 막히면 안된다. 김호진 5단은 우변을 선수로 보강하기 위해 83까지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 81-75.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명의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송태곤, 원익배서 이세돌 꺾어

송태곤 8단이 지난 19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원익배 삼단전 본선 3회전에서 이세돌 9단을 295수 끝에 흑 8집반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송 8단에게 일격을 당한 이 9단은 최근 박카스배 천원전 결승 이후 5개월여 만에 2연패를 기록했다.

또 다른 3회전 대국에서는 김주호 7단이 '신에강호' 은소진 3단을 170수 만에 백불계로 따돌리고 8강에 합류했다.

김 7단은 지난기 준결승 진출자 최철한 9단과 격돌한다. 이 대회 우승상금은 3천500만원(준우승 1천 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43.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 15회 도하 아시안 게임이 16일 새벽(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 58개·동 82개를 획득, 일본(금 50·은 71·동 77)을 제치고 당초 목표순위를 달성했습니다. 종전 대회보다 메달 수가 대폭 줄어 들었지만 지난 1998년 방콕 대회와 2002년 부산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같은 성적을 지켜냈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의 종합 순위는 몇 위인가?  
① 1위    ② 2위    ③ 3위    ④ 4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2일(을 11월 3일乙酉)	
 子	36년생 자식 편에 경사가 생긴다. 48년생 보고 싶은 사람 떠나고 미운 사람 보인다. 60년생 시간은 지루하나 뜻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72년생 바쁜 하루가 된다. 84년생 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9, 30
 丑	37년생 작은 병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49년생 분수를 지켜야 內咎가 줄어든다. 61년생 욕심을 버려야 대손이 생길 수다. 73년생 자신의 앞일에 변화가 온다. 85년생 속단은 금물이니 여유 있게 생각하라. 행운의 숫자: 11, 34
 寅	38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오히려 득으로 변한다. 50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난다. 62년생 주변에서 협력자가 나타나 큰 도움을 준다. 74년생 一喜一悲가 있지만 꼭 좋지만은 않으니 파악하자 마라. 행운의 숫자: 20, 32
 卯	39년생 관작 놀람 만한 좋은 일이 생긴다. 51년생 겉보기와는 다르게 쉽지가 않다. 63년생 옛 일은 잊고 화해하라 망신은 면한다. 75년생 자녀와 직장 사이에 불륜사가 발생하나 측근이 도와준다. 행운의 숫자: 12, 35
 辰	40년생 시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2년생 직장에서는 언행을 집에서는 조심하라. 64년생 어려운 일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76년생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몇 내고 나가보라. 행운의 숫자: 22, 28
 巳	41년생 마무리가 안 된 일이 자신을 괴롭힌다. 53년생 지나친 욕심은 평화를 해친다. 65년생 가까운 사이에 신사는 절대로 시작도 하지마라. 77년생 고운 정 미운 정 다 생긴다. 올라보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21, 44
 午	42년생 이성과 情分으로 구설수가 생길 수다. 54년생 인생의 후반전 다가는 큰일을 그려진다. 66년생 아들이 괴롭도다. 대화가 필요하다. 78년생 형제 도움이 절실하니 찾아보고 청해보라 결정타가 될 것이 다. 행운의 숫자: 16, 18
 未	43년생 부부간에 서로서로 살피보면 예정이 솟으리라. 55년생 아내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날이다. 67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적으리라. 79년생 삼사일언 생각하면 실수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14, 43
 申	44년생 大歡이 예상되니 굳은 마음을 각오하라. 56년생 자신 재주 믿다가는 큰일을 그려진다. 68년생 들고 날 때를 정확하게 지켜라. 오히려는 사라진다. 80년생 친한 친구에게 말조심 행동조심하면 큰 득을 주리라. 행운의 숫자: 24, 31
 酉	45년생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가려서 행하라. 57년생 아들 과 대화하고 고민을 들어보라. 69년생 부부사이의 의무를 다하고 나면 예정은 셈수다. 81년생 형제 부모가 모두니 모든 일이 평온하다. 행운의 숫자: 17, 42
 戌	46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諸事가 풀려가니 감사하게 생각하라. 58년생 순리대로 행동하면 결과도 좋으리라. 70년생 여자의 마음이 헛갈리니 중심을 찾아라. 82년생 물고 싶은 일이 생기니 마음껏 물면 역운은 달아난다. 행운의 숫자: 01, 41
 亥	47년생 지인과 시비가 발생하니 조심 또 조심. 59년생 시비 구설수가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하니 조심하게 처신하라. 71년생 자신의 욕언으로 쌓아온 평성이 격정된다. 83년생 오래 동안 생각한 것을 결정해도 좋을 수다. 행운의 숫자: 23, 43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803>	오하이오 니혼고 <803>	니하오 풍구워 <521>	한자 이야기 <421>
<p>Would you like to ~? ~하시겠습니까?</p> <p>A: That looks interesting. What are you doing? B: It's called finger weaving. A: It looks hard. B: It isn't. Would you like to try it?</p> <p>A: 그걸, 재미있어 보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B: 손가락 위브라고 합니다. A: 어려워 보입니다. B: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 볼래요?</p> <p>That looks ~ : 보아하니~인 것 같군요 It's called ~ : ~라고 해요. Would you like to ~? : 해보실래요? - Would you like to go to a movie? 영화 보러 가겠습니까? - Would you like to go to the seminar? 세미나에 가시겠습니까? - Would you like to take the computer course? 이 컴퓨터 과정을 택하시겠습니까?</p>	<p>どうん譯(やく)したらい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p> <p>A: ええええ、このところ、どうん譯(やく)したらいい? B: (僕)にわかるわけないじゃない。英語(えいご)ならともかく、ペルシア語(ペルシア語)じゃ、「ちんぷんかんぷん」だよ。 A: そうよね、このみみずが這(は)ったような文字じゃね、聞いた私が悪かったわ。 B: そういうこと。</p> <p>A: 이봐 이봐, 이 곳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B: 내가 알 리가 없잖아. 영어라면 어쨌든(모르지만), 페르시아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A: 그렇군. 이 지렁이가 기어간 듯한 글자라니. 물은 내가 잘못이군. B: 그렇지 뭐.</p> <p>譯(やく)する: 번역하다 ともかく: 어쨌든 ペルシア語(ペルシア語): 페르시아어 みみず: 지렁이 這(は)う: 기다</p>	<p>说话算数 말한것을 책임지다</p> <p>A: 你好好学习。 你好好学要算一算算算算。 Ni hǎo xuéxí wǎn. Nǐ hǎo xué yào suàn yí suàn suàn suàn. B: 你要说话算数。 Nǐ yào shuō huà suàn shù. (너 말이 지켜야 한다) A: 只说你好好学习，我不会说话不算数哈。 Zhǐ shuō nǐ hǎo xuéxí, wǒ bù huì shuō huà bù suàn shù hā. B: 오 네 好好学 하네. 할 무얼하 하겠네 할 무얼하 하겠네 C: 我一定算好的。 Wǒ yí dìng suàn hǎo de. (와! 정말 최선을 다해) A: 네 열심히 공부하면 선생께 자신이 생기겠. B: 말한 것을 책임지셔야 해요. A: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건데네, 네가 약속을 잘 지켜서는 않겠네. B: 꼭 노력할게요. 算数: suànshù: 셈법을 하다 努力: nǔlì: 노력하다</p>	<p>麒麟兒 (기린아)</p> <p>기린 기, 기린 린, 아이 아</p> <p>기린아(麒麟兒)는 '기린의 아이'라는 뜻으로,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한 젊은이의 비유이다. 장래 대성(大成)할 것을 기대하는 우수한 소년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기린은 아프리카 산의 목이 긴 '지라프(giraffe)'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중국의 상상(想像) 속의 동물을 말한다. 몸은 사슴의 모습이고 꼬리는 소와 같으며, 발굽과 갈기는 말과 같고, 머리에는 뿔이 하나 있으며 5색으로 빛나는 털로 덮여 있다고 한다.</p> <p>기(麒)는 수컷이고, 인(麟)은 암컷인데, 특히 '기린'은 봉황(鳳凰)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출현하면 세상에 성왕(聖王)이 나올 길조로 여겼다. 또 '인'은 이마에 뿔이 하나 돋아 있는데, 그 끝에 살이 붙어 있어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는다 하여 어진 짐승의 상징으로 여겼다.</p> <p>나아가 백수(百獸)의 영장(靈長)이라는 점에서 걸출한 인물에 비유되고, 뛰어난 젊은이를 가리켜 이 '기린'에 '아이 아(兒)'를 붙여 '기린아'라고 부르게 되었다. '기린아'는 주로 '시대의 기린아', '재계의 기린아', '문단의 기린아' 등 어떠한 분야의 '촉망받는 아이'를 뜻하는 말로 한정되어 사용되었으나, 뒤에는 '젊은이'라는 뜻으로 확대되어 사용하고 있다.</p>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예원(韓喜嫺)> 조선대학교 교전연구원 ☎ 230-6505